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SBS/KBC),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September 29th.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September 30th.

“남의 자식에게서 ‘아빠’ 소리 들으면 기분 어떨까, 얼마나 노력해야 할까?”

영화 ‘담보’ 출연 배우 성동일

‘국민아빠’라는 칭호가 어색하지 않은 배우 성동일이 영화 ‘담보’에서 우리 집 아빠 같은 친근함으로 관객들을 찾는다. 까칠하지만 속정 깊은 사채업자 ‘두식’은 현실 속 성동일과 똑 닮아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최근 만난 성동일은 두식이란 인물을 두고 “그냥 성동일이다”라고 해석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예능 ‘아빠! 어디가?’로 각인된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꾸민 연기를 하지도 않았다. 성동일은 “연기 변성이 없었다”라며 “내 나이에 맞는 역할이었고, 편안하게 연기했다”고 털어놨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감정을 억누르는 연기다. 영화 속 두식은 때

소중한 가족 앨범같은 영화 내 자식·내 일이 아니어도 우리 이웃에 관심 가져보자

인 돈을 받으려 갔다가 얼떨결에 아홉살 소녀 승이(박소이)를 담보로 맡아 키우며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간다. 성동일은 “친딸은 함부로 해도 승이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야단도 못 치고, 아이가 불편해하는 행동은 안 하려고 노력한다”라며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고 하는데 승이는 어려운 딸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눈물 연기를 잘 참하는데도 감정을 다 억눌렀다. 관객들에게 (어떤 감정이

지들) 던져줘야겠다고 판단했다”며 “남의 자식에게서 아버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어떨까. 그러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할까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완성한 ‘담보’는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다. 시사회도 아들과 두 딸이 함께했다. 아이들은 “앞부분은 아빠랑 똑같다”, “아빠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라는 반응들을 내놨다고 한다. 영화와 드라마, 예능을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을 하고 있지만, 영화는 그에게 특별한 하다. 성동일은 “영화는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기록성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라며 “아이들이 커서도 우리 아빠가 이때 이런 영화를 했다고 회상할 수 있는 것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보’는 가족에게 소중한 앨범 같은 영화”라고 덧붙였다.



성동일

무엇보다 영화가 관객들에게 던지는 따뜻한 메시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빠로서 공감이 갔다고 했다. 성동일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네 아저씨, 형, 할머니 다 인사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옆집 사람

이 죽어도 모른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일은 아니지만’이라며 이웃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식은 영원히 아빠가 될 수

없다. 영원한 아저씨다”라며 “(정서적인) 가족이 되기는 불가능하고, 평범한 가족이 되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점이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9일(음 8월 13일 乙亥)

☎ 010-9790-8237

36년생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48년생 성과가 크지는 않지만 그만큼 실속은 있는 편이다. 60년생 좀더 세분화한다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72년생 현명하게 처신해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84년생 일시적인 현상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라. 96년생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64

39년생 호사다마 하는 세상의 이치를 알라. 51년생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63년생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다. 75년생 맹점을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87년생 시급하다. 99년생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조후이다. 행운의 숫자 : 43, 98

42년생 길한 징조가 가까이다가오고 있다. 54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66년생 시간은 걸렸지만 여건이 조성되어 가리라. 78년생 균열이 염려되는 바이니 투명하면서도 매끄럽게 처리하라. 90년생 주인공이 된다. 02년생 짐작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5, 97

33년생 예측 불허의 변수가 작용하면서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판국이다. 45년생 만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57년생 길조가 깃드는 판세이리라. 69년생 무작정 버티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81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 낸다면 희망찬 미래를 연다. 93년생 낱알이 싹펴보고 대응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8, 63